

윤석열 사퇴후 지지율 폭등...여권 당혹 야권 흥분

민주당 “반기문처럼 곧 사라질 것”
 與 대권주자들 “상황 더 지켜보아야”
 국민의힘 “이제야 해 볼만...” 들쭉
 김종인 “별의 순간 잡은 것 같다”
 야권 합류나 신당이나 정치권 촉각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전 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의 미를 깎아 내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감 속에서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정래 의원은 SNS에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도 갔고, 김무성도 갔고, 반기문도 갔다”며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도토리도 만들다가 반기문처럼 사라지거나 제3지대에 머물며 안철수처럼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윤석열의 등장이 국민의힘에는 재앙이 됐다”고 적었다.

강홍석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 “이후에는 등락이 굉장히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다”며 “현 기록권에 대해 싸우는 포지셔닝으로 얻는 포인트가 있다면,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최고위원은 “컨벤션 효과”라며 “원래 정치권 밖에 있으면 지지율이 높고 안에 들어오면 정상화되며 바뀐다. 남아 있는 고비가 많다”고 언급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등으로 이미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매개로 정권 견제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을 때 “찾잔 속 태풍”, “이제 일개 정치인에 불과하다”며 대권주자로서 경쟁력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막상 사퇴 나올 만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수직으로 상승하자 적잖이 당황한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의 대권주자들도 ‘윤석열 현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이 하루 아침에 30% 안팎으로 치솟은 ‘통계’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막강한 잠재력이 확인된 만큼 대권 구도의 ‘상수’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선두를 지켜온 이재명 경기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율은 언제든 변동하는 것”이라면 “오늘 조사에선 여론 지지층에 변화가 없었는데, 여론 지지층 내에서의 이동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에서는 과거 야권 주자가 부각될수록 여권이 1위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지사가 그동안 ‘윤석열 이슈’와 거리를 뒀었기에, 이번 계기에 윤 전 총장과 본격 각을 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단기적 현상일 수도 있고,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언급을 아꼈다. 이 대표로선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양자 구도가 선명해진다면 존재감이 희미해질 우려가 있다. LH 사건에 따른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영향이 이 대표 개인 지지율에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야권은 “윤풍(윤석열 바람)이 불어닥쳤다”, “이제야 해 볼 만하다”는 말이 오가는 등 은은 일 들쭉였다. 꺼질 것 같았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전격 사퇴 직후 30% 안팎으로 튀어 오르는 정권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퍼진 것이다.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면서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선 ‘이재명-이낙연’에 밀려 5%를 넘는 주

자들조차 보기 드물었던 게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 밖에 안 온다”며 윤 전 총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야권으로 편입된 윤 전 총장이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당장 정치에 투신하거나,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권 비리 수사나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시작하더라도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둔 채 당분간 외곽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요동치는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보선이 끝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뒤 흔들릴 수도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중심에 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이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행로를 걸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계 엘리트 출신인 자신을 경제산업부 장관까지 시켜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집권 사회당에 결별을 선언하고 탈당한 마크롱은 의석 하나 없는 중도 신당(앙라르)을 만들고 바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윤석열 대망론’을 주장해 온 정진석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이제 혼자서 못 내린다”고 표현했다. 정계 진흙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응답해야 한다”며 “그 시점이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검찰개혁 힘실었지만... 질서있는 개혁 주문 ‘잡음 최소화’ 방침

법무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검찰개혁 조치와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원칙에 힘을 실으면서도 ‘질서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발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움직임에 반발해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나온 대(對) 검찰 메시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문 대통령이 ‘개혁 안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이재명 청와대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직설적인 표현은 최대한 삼가면서 ‘힘 있는 개혁’과 ‘안정적인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날 발언의 무게중심은 ‘안정적인 개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부처간 협력관계 구축 등의 절치를 강조한 점, 국

회의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한 점 등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책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했다. 개혁작업이 무질서·무책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검찰의 반발은 물론 반대 여론에 부딪혀 오히려 개혁 작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으며, 이는 임기후반 국정동력 전반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서도 갈등의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역량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역량 부분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제까지 이뤄낸 개혁 성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신설된 국가 수사분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독려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국수분이 어떤 역할을 보여 주는지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 전반에 대한 평가로도 직결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적합도, 윤석열 32.4%...이재명 오차범위 밖 제치고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도尹 28.3%로 선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수직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잇따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같은 KSOI 여론조사 때의 14.6%보다 무려 17.8%포인트 치솟았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당시의 23.4%보다 0.7%포인트 올랐고, 이 대표는 16.8%에서 1.9%포인트 내렸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과 보수 성향층(50.9%)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4%)과 50대(35.3%)에서, 지역별로는 서울(39.8%)과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과 진보 성향층(41.9%), 40대(38.2%)의 지지가 컸다. 이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

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6~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뛰어올랐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3%로 선두로 올라섰다. 이 지사는 22.4%, 이 대표는 13.8%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간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이내다.

이외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정세균 국무총리 3.1%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